해남 '호박고구마' 인기 폭발

홈쇼핑 판매 매진 기록
3곳서 15만상자 팔려

해남 '호박 고구마'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부터 TV 홈쇼핑 채널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호박 고구마는 물량 부족으로 판매를 중단할 정도로 수요가 늘고 있다.

화산농협은 지난 연말부터 CJ 홈쇼핑을 통해 판매를 시작해 현재까지 6만 상자(5㎏·7㎏)를 팔았으며 이레영농법인은 농수산 홈쇼핑에서 지난해 12월초부터 15회 연속 매진 기록을 세우며 3만5천 상자(3㎏·5㎏)를 판매했다.

지난해 10월부터 GS홈쇼핑에서 호박고구마를 판매하고 있는 새순영농조합법인도 총 6만상자의 실적을 올렸다. 특히 화산농협과 새순영농조합법인은 확보한 물량이 바닥나 최근 홈 쇼핑 판매를 중단했다. 호박고구마는 호박처럼 노란색을 띤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으로 가격이 5㎏ 한상자에 일반 고구마보다 2천원 정도 비싼데도 단맛이 강하고 부드러워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해남에서는 822농가가 1천460여ha에서 고구마를 재배, 연간 3만4천310t을 생산하고 있으며 그중 호박고구마는 총생산량의 12%인 4천여t을 차지하고 있다. 해남군은 물량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재배면적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해남=박정옥기자 jopark@

신안군 예산서 '멋대로 변조' 파문

의회 의결불구 증액·신설 수두룩… 군수 사과 요구

신안군이 군의회에서 의결한 올해 세입·세출 예산서를 임의로 변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안군 의회 주장배 의원은 30일 군의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해 정례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집행부의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해 원안에 가까운 예산안을 의결했는데 어처구니 없는 예산서 변조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2007년 세입·세출 예산서의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운영비 140만원 및 재무과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천100만원이 공기관 등 대행 사업비로, 총무과 군정자문위원회 운영수당 3천840만원은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작은 섬 행정 상담위원 운영 수당으로 각각 변경됐다는 것이다.

또 건설과 시설비 70억원은 시설비 69억3천700만원과 시설부대비 6천300만원으로, 보건소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 1천950만원은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임의 변경됐다고 주의원은 주장했다.

이와 함께 명시이월비의 경우 2007년 본 예산과 2회 추경 때 승인된 126건 247억1천589만4천원이었으나 3건에 7억2천302만9천원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획예산실에 편성된 명문고육성 교육기관 보조금 3억원은 의회 승인후 총무과 소관 교육관리 예산으로 임의 변경됐다는 것.

군의원들은 이에대해 군수 사과와 함께 해당 직원 징계,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보성 녹차한과 인기 국내 최대 녹차 산지인 보성에서 녹차를 이용한 전통 한과가 생산되고 있다. 친환경 우리 농산물인 찹쌀과 조, 녹차잎을 이용해 만든 녹차 한과는 '웰빙식품'으로도 인기를 모으면서 설 선물용 주문이 늘고 있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섬 주민 운전면허 취득 '우리가 돕자'

완도 금일파출소 직원 교통법규 등 교육

완도 금일파출소 직원들이 섬지역 주민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돕기 위한 교육을 벌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완도경찰서 금일파출소(소장 정한대)는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동안 여성이나 고령자 등 주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매일 2시간씩 교통관련 법규 등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24일 치뤄진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207명이 응시, 130명이 합격해 64%의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다. 정한대 소장은 "운전면허시험장이 원거리에 위치해 있는데다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이 많아 필기시험 취득을 적극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담양지역 신생아 하루 1명 꼴 출생

인구 5만의 담양에서 지난해 하루 1명꼴로 신생아가 태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해 군에 출생 신고된 신생아는 정확히 하루 평균 1명꼴인 365명으로 집계됐다. 읍면별로는 담양읍이 147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읍면에서는 10-20여명의 아기가 태어났다.

담양지역 신생아는 지난 1980년 2천869명(일 평균 7.8명)이던 것이 1990년 825명(2.3명), 2000년 608명(1.7명), 2004년 384명(1.05명) 등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반면 사망자는 2004년 640명, 2005년 571명, 지난해 533명으로 신생아 수를 훨씬 웃돌고 있다. /담양=차재화기자 jhwha@

■ 새얼굴

"자금지원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

김 용 복 농협광양시지부장

"농업인과 지역민들로 부터 사랑 받는 농협을 만들겠습니다"

신임 김용복(52) 농협중앙회 광양시지부장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 확대 등 지역에 도움되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순천출신인 김지부장은 지난 82년 농협에 입사, 동순천지점장, 순천중앙지점장, 중앙본부 여신관리부장, 심사부장 등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이영순씨와 1남 1녀, 취미는 바둑.

/광양=김춘호기자 chkim@

"14만 광양시민의 복지증진 최선"

정 현 복 광양 부시장

"고향에서 일하게 돼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신임 정현복(58) 광양부시장은 "지역 발전과 14만 광양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광양시 골약동이 고향인 정부시장은 지난 1969년 공직생활을 시작해 농민교육원 서무과장과 전남도 예산 2계장, 재정담당관, 공보관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최옥선씨와 1남1녀가 있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섬지역 천연자원 특화산업 적극 육성"

박 진 하 신안 부군수

"희망이 샘솟는 신안건설을 위해서는 말보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지난 25일 부임한 박진하(58) 신안 부군수는 "1천여 개의 아름다운 섬과 청정갯벌, 게르마늄과 미네랄이 풍부한 토양 등 신안군의 비교우위 자연자원을 특화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완도가 고향인 박부군수는 지난 1973년 공직에 입문, 전남도 수산시험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김경금씨와 1남 2녀가 있으며 취미는 등산.

/신안=조완남기자 wncho@